



**전주시 의사회, '행복 나눔 실천' 천만원 기탁**

5일 전주시청을 방문한 전주시 의사회(회장 정경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따뜻한 겨울나기 설상차립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정경호 회장과 박용현 부회장 이상권 총무이사 등 전주시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사랑의 성금은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등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경호 전주시의사회 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로 인해 주위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의 작은 성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늘리지 않고 보내주는 전주시의사회와 사단법인 이웃사랑의 사회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2023년 새해는 전주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출발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복 나눔 실천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사회는 해마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꾸준한 성금을 기탁하며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업인이 존경받는 농협 구현"**

**전북농협임직원 일동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홍보 캠페인**

전북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5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임직원 및 지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김영일 본부장과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이숙 농협생명보험 총국장, 김현미 농협신해보험 총국장을 비롯한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앞서 농협은행 전북영업부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에 동참하며 제도 활성화 염원을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출시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게 최대 0.6%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상품류 위에 고객이 희망하는 지역명을 봉장에 인자함으로써 애환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농협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에 참여한 고객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고, 공익기금을 적립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상품"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가입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비유형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에 다양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2023년 일일호국원 신년참배**

전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국립일일호국원을 5일 방문해 나라사랑의 참뜻을 펼치기 위해 헌정탑을 찾아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전북지방청 직원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서주범 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며,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주승균 자문위원, 민주평통 의장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전북무주군협의회는 지난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상식에서 주승균 자문위원이 영예의 대령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승균 자문위원은 2012년 3월 민주평통 전북무주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활발한 주민 소통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 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통일공간행사, 체험 홍보 캠페인, 사랑의 나눔 등을 실천해 왔다.

주승균 자문위원은 "이 과분한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민 및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다짐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줄 이어**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에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레이첼영어교육소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에서 각각 1백만 원 을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레이첼영어교육소 이진숙 원장은 "평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걸 알게 됐다"라며,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레이첼영어교육소는 2020년에 개업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소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김성근 회장은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며 "무주군에 우수한 인재가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거성농자재 정민규 사장은 "무주의 미래는 바로 청소년들이"라며 "이들 청소년들이 어엿한 무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연초를 맞아 아이들을 위해 선뜻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무주의 청소년이 더 큰 인재로 성장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농협, 건강한 농축산물 꾸러미 200세트 기탁**

전북도청을 찾은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농축산물 꾸러미 200세트(1200만 원 상당)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일 기탁하며 지역 이웃 사랑 실천을 보였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농축산물 꾸러미 200세트(1200만 원 상당)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일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농축산물 꾸러미는 요즘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일환으로 마련했다.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도내 14개 시·군 취약계층에 총 1,688세트(1억 원 상당)가 전달 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불황과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농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도내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려운 상황에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농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도내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치매적정성평가 1등급... 치매진료 인정 받아**

전북대학교병원 치매진료센터가 치매적정성평가 1등급을 획득하며 치매 진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번 치매적정성평가는 치매 진료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의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 치매 환자 진료한 전국의 8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상담의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용 등 평가지표 4개와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 환자의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평가 비용 향성신병 약물 투여

율 등 모니터링 지표 5개' 등 9개로 구성돼 있다.

전북대병원은 구조지표 중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상담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용,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평가비용' 등에서 만점을 받아 전체평균 100점 만점으로 전체평균(72.9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유희철 병원장은 "심평원이 이번에 처음 실시한 치매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치매 진료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며, 고령화 사회 늘어나는 신경계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첨단 의료장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양질의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비전대 박성용 직원, 한국교육개발원장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기획처에 근무하는 박성용씨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성용 직원(만 37세)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정책조사 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기획처에서 교육정책단위,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업무의 총괄 담당자로서, 대학 주요 지표를 나타내는 기초자료의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왔다. /장은성 기자

**군산 산복중, '산빛 어울제' 기금적십자사에 기탁**

군산 산복중(교장 서경배) 학생회 및 학부모회가 '산빛 어울제' 축제로 마련한 기금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전달했다.

김대현 군산 산복중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이시은·오민서는 "유난히 춥고 힘든 이번 겨울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지난 2022.12.1부터 '세상을 밝히는 착한마음, 적십자회비'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진행 중이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앞서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장은 지난해 11월,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주군 원주소방서 등 14개 유관기관 및 기업, 지역주민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

훈련을 통해 공사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 안속한 재난안전 통신망 통한 초동대응 태세를 갖췄는지,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과정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공사는 같은 해 8월,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썸머 페스티벌 물놀이 축제' 행사에서 어린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훈련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도 함께 펼쳐며 재난안전 중심의 훈련을 적시에 기획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지현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주민참여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권해정 남원시 민원과장, 국토정보공사 감사패 받아**

남원시 민원과 권해정 과장이 5일 지적측량 및 지적제조사 사업을 유기적인 협조에 힘써온 점을 인정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권해정 민원과장은 지적확정측량 및 구획경지정리사업과 전국 최고 수준의 지적제조사업 추진을 통한 지적불부합 해결 등 어려운 측량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적측량 업무 발전에 일조 하였으며,

특히 국가사업인 지적제조사업을 통해 주생면 중동리제 건립 예정인 L2드론활용센터의 지적확정을 하는 등 남원시 지적행정의 현격한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권해정 민원과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패 수여는 시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지적·토지정보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대 치대 18기 졸업생들,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18기 졸업생들이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4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발전기금재단은 지난 4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치과대학에 지정돼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18기 졸업생 대표 박정길 원장은 "졸업 후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며 "더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소화전 사용법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옥내소화전에 외국어와 그림이 포함된 사용설명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 및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소화전한 내부 및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려 초기 화재진압을 신속히 실시하고, 소화전한 문 개방시 표시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사용법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재실 소방사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조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사용법 부착으로 외국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